조선대, 지역 성장 이끄는 지역 거점 대학으로 '우뚝'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수행 과제 사업 수주
올들어 337억여 원 규모의 호남 유일 사업 선정
굵직한 사업 유치로 지역 성장 발전 견인

조선대학교가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고 제조·창업 지원 인프라를 갖추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조선대 제공〉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굵직한 사업을 호남에서 유일하게 연달아 유치·조성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조선대는 지역의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지원, 일 자리 창출을 비롯해 아시아e스포츠문화중심조성에 힘을 쏟고 지역 발전 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광주 e스포츠산업 플랫폼 조성 박차

조선대학교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인 'e스포츠 산업 지원센터' 조성·운영 사업에 선정돼 광주 e스포츠산업 플랫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최대의 e스포츠경기장을 확보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에 'e스포츠 산업 지원센터'가 들어서면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의 e스포츠 관련 분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조선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e스포츠산업지원센터(총괄책임자 김현우 교수)는 e스포츠 관련 민간 협업, 국제 교류 등을 통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광주를 아시아 e스포츠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조선대학교는 사업수행 기관으로서 2022년부터 7년 간 16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아시아 e스포츠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 e스포츠 기관과 협력해 차별화된 경영모델을 만들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 e스포츠 대회 및 포럼, 지원 클럽별 챔피언십을 통해 경기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민간분야 연계를 통해 생활밀착 e스포츠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광주 및 호남 지역 기반 e스포츠 프로구단 지원사업, e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및 광주광역시 자매 도시와의 친선교류대회를 통해 국내 및 국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로 제조·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민들의 제조·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초점을 맞춘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에 최종 선정된 조선대학교는 2022년부터 5년(3년+2년) 간 국비 75억 원(매년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광주시와 동구도 각각 7억 원, 3억 원을 지원한다.

2022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제조창업 촉진과 메이커 문화 확산 선도를 위한 사업으로, 10개소의 전문랩과 15개소의 특화랩을 구분해 선정했다.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황석승 IT융합대학 전자공학부 교수)은 전문랩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창업지원단 부단장인 김호중 교수(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화학과)가 총괄책임을 맡았다.

민영돈 총장

전문랩의 경우 시제품 제작·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지원해 제조·창업을 촉진하고, 제조·창업 등 혁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최신 3D프린터, 3D스캐너 등 첨단 고가 기자재를 이용해 재학생 교육은 물론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에게 시제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혁신 클러스터 조성 시동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 헬스의 산업 연구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운영기관으로도 발돋움 할 전망이다.

조선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도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은 기술, 인프라, 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플랫폼으로 선정해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혁신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에서 5개 대학과 4개 연구기관이 선정됐다.

호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사업에 선정된 조선대학교는 국내 바이오·헬스분야 기업에 대한 사전진단, 컨설팅, R&D기획, 협력 R&D지원 및 사업화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수인력풀을 활용할 계획이다. 과제당 최대 2년 4개월간 3.2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 기간 동안 최대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조선대학교는 2022년도 산학연 협력 플랫폼 R&D(연구개발) 수행기관(총괄책임자 최한철 산학협력단장)으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지원기업 선정공고를 통해 후보기업을 발굴하고 6월 말까지 최적의 지원유형에 맞는 기업을 최종 선정해 7월부터 R&D 과제수행과 비R&D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기업역량강화 및 성장을 위해 특허법인, 엑셀러레이터, 기술사업화기관, TIPS 운영사, 벤처캐피탈(VC)기관, 기업지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 약 70여개 기관이 협력한다. 조선대학교는 보유 또는 운영 중인 원스톱(one stop) 산학협력 지원시스템, 코테크 오피스, 산학협력 멘토단, 교내 12개의 바이오·헬스 지원기관과 함께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일의 산학연병관 클러스터가 광주지역에 구축되어 있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의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플랫폼 R&BD(사업화 연계기술개발) 혁신과 연구 생태계 거점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 가치를 제고할 전망이다.

조선대학교가 학생중심, 취·창업 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창업벤처혁신 생태계 구축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유치

바이오 헬스 산업 연구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20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도 주관기관(일반형)으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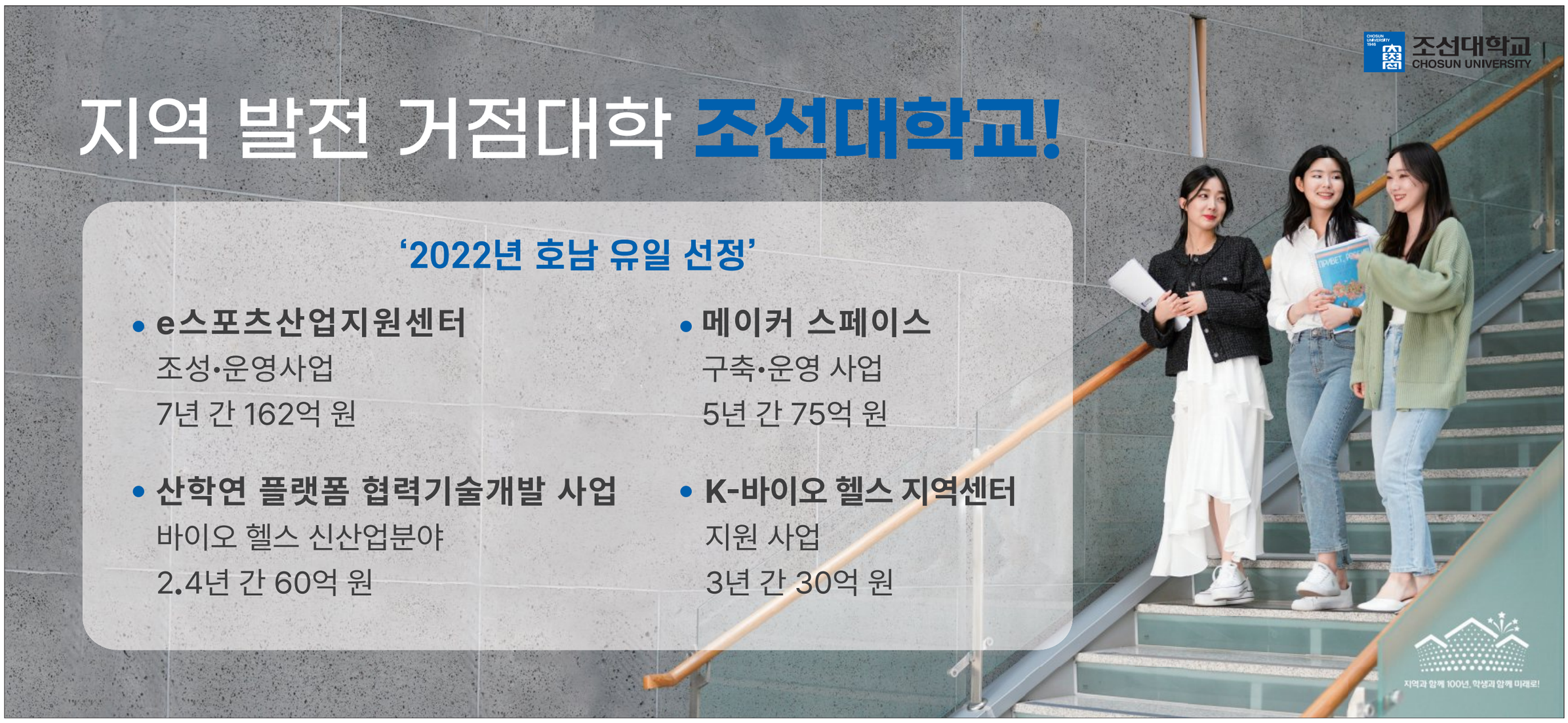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 주관하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연구역량이 우수한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생명공학 협력단지)와 병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총 30억 원(국비 21억 원, 지방비 4.5억 원, 민간 부담 4.5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조선대학교는 K-바이오헬스 산업분야 클러스터, 병원 및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으로 산·학·연·병·관 공유협력을 통한 창업벤처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지역성장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조선대학교는 시설장비, 임상능력(MD) 등 바이오 클러스터와 병원 내 인프라 및 자원을 결합해 지역 내 의료인 등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업 주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총괄책임자 이준식 교수)은 지역센터 허브 기능, 창업, 교육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광주테크노파크는 기업성장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한다.

연계기관인 조선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에서는 연구회, 인증, 임상, 테스트 베드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부터 기업경영까지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영돈 총장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곧 지역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미래적 관점의 역량기반 교육 강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확대, 산학연 협력 채널 조직화 및 다양화 등 지역 연계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며 "민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가치 공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대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